

‘빅2’식 시장경제와 마각



자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말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고삐를 되잡던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 14차 대표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국 헌법에도 명시된 이 개념에 대해 우리들은 아직도 낯설다. 중국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 당헌(당정)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장 앞에 명기하며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신봉하며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 진영과 맞서고 있는 체제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유제와 상치되는 ‘웬 시장경제’일까 하는 의문이 있겠지만 이 개념은 사실상 미국에 맞서는 현 중국을 이해하는데 있어 키워드이다.

용어적으로는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초로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 아래, 시장 메커니즘을 가미해 사회자원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지향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10여년의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좀더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특히 몇 년전부터 전면에 등장한 ‘공동부유’라는 아젠다를 보면 더욱 실

체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함께 잘 살자’는 국가적 슬로건으로 이어져 빅테크기업 (대형 정보기술기업), 사교육, 부동산 등 빅2 경제의 견인차였던 민간 경제의 대형 주체들을 규제와 간섭의 사슬에 묶어냈다.

고도성장기에 중국정부로부터 적사대접을 받았던 외자기업도 예외가 없는 형국까지 이르렀다. 급증하는 노동비용 외에 암묵적 장벽, 비효율적 재산권 보호, 다중적 법집행 구조 등에 삼성과 애플, 도시바,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국적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떠났거나 채비중이다.

지금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시행할 반도체 지원법의 전제조건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이익 환수, 10년간 중국 투자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고용, 보육, 노동 분야에서도 기업에 황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기밀 누설, 자유로운 투자 및 경영활동 제약, 영업비밀 노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들 독소조항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공장을 방문해 K-반

도체가 세계 최고라고 추켜세우고 국내 반도체기업의 미국투자를 당부하던 모습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장기프로젝트에 이미 착수한 우리 기업은 세계최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미 정부가 실패한 법안에 담겼던 많은 사회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쓰고 있다”며 기업보조금을 통해 보육, 노동, 고용에서 외국기업들에 과도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맹주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중국스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에 유지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에 국내 산업계가 홍역을 겪고 있다. 이는 자칫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공동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애초부터 대놓고 공공의 민간 간섭과 공유를 내걸었지만 중국 경제의 명분 뒤에 숨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모방하는 상황이다. 빅2의 틈바구니에서 미래산업의 생존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국회도 ‘원 팀’을 필요로 한다



기자 수첩
최영훈
(정치경제부)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저마다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과 함께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9일 첫 최고위원회의 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 한 마음이 돼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다소 생각 차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 윤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윤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나로 뭉쳐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대통령이 곤란 겪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 수습 때문이다. 최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일부 의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색출’에 나선 게 문제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후폭풍에 자제하려고 요청했고, 여기에 호응하듯 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민주당원들도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에게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대오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는 글귀가 적힌 떡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작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문제의 경우 ‘각자

도생’하고 있다. 서로가 제시하는 해법만이 마치 ‘정답’인양 한 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민생 현안을 챙기자고 지난 1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까지 열었으나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 투자세액 공제를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만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은 뒷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익과 관련된다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처럼 여야 정치권이 따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원팀’을 꾸려 민생 현안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choiyoungkr@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음 2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이를 망각하고 경계망동하지 마라. 48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 잡히기를 기대하는가. 60년생 인색하게 베풀고 집안청첩장 보내지 말도록. 72년생 두드려면 열릴 문이다. 84년생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해야.



37년생 한번 기울면 회복시키기 어려우니 건강을 먼저. 49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 61년생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73년생 실수가 있어도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열심히. 85년생 친구사이라도 시기질투는 있는데.



38년생 자승잡박(自繩自縛)이니 누굴 탓하라. 50년생 걱정거리 없다고 남의 불행을 불구경하지 말 것. 6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할 일을 찾아보자. 74년생 오후 돈 문제해결이. 86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39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자. 51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63년생 이별한다고 시댁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75년생 아이디 어창의력이 빛난다. 87년생 담력을 크게 갖고 시험공부에 임하도록.



40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내 도끼이다. 52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4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6년생 기술로 가는 길이 지금은 최선이라는 신념을. 88년생 부모에게 화를 내면 결국에 후회.



41년생 동물학대하는 친구는 말리지만 비둘기 밥은 주지 않도록. 53년생 종로에서 뽕맛과 한강 가서 논 흘길 듯. 65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다녀 본들. 77년생 금전 문제가 해결된다. 89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42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54년생 남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도록. 66년생 재혼에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78년생 백상 남의 인생이니 지금부터 노후계획을 차근히. 90년생 어떤 선택도 여자가 없으니 기다려라.



43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5년생 나무는 잘 가꾸어야 기둥이나 대들보가 된다. 67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다. 79년생 다툼이 생겨도 도와주는 이가 있다. 91년생 노력한 만큼 영업성과가 나타난다.



44년생 마음가짐은 즐겁게. 56년생 산행을 가보자. 68년생 좁은 길을 건널 때 운전은 천천히. 80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나간다. 92년생 플라톤은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했다.



45년생 남의 시간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57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잘 살펴보자. 69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81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 93년생 원수끼리 한배에 탈수도 있음이니 남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46년생 위기를 겪으며 인간성을 안다. 58년생 시작도 없이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잡힌다. 7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오후휴식. 82년생 상상으로 행복하다. 94년생 대가를 치르고 겪어보기 전에는 사전준비가 안되는 게 사실일 것.



47년생 실패의 학습효과로 투자는 하지 않는다. 59년생 고향의 풍경이 아름답다. 71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다. 8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95년생 고서에서는 효를 거역하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라 했는데.



김상회의四季

좋은 이름은

그런데 전술하였다고 친족간의 항렬을 중시하다 보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한자이름의 기본적인 성(姓)과 이름 두자 중의 하나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수를 둘 수 있는 글자는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 성명학의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진다. 게다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격까지 맞춰야 하며 발음상의 오해합까지 고려할 때 이름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 난 연월일시의 사주를 감명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지라 단순히 획의 조화만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닌 고난도의 작업이 된다.

음양오행 이론은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 동방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소산이다. 음양오행은 물질과 정신분야를 두루 포섭하면서 상호 교류되는 에너지파장에 기반을 둔 분야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실제로 물질인 육신신체에 병을 가져오고 반대로 몸이 아프면 건전한 사유 활동에 지장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엮여있는 신경물질 반응체계로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자이름이라 할지라도 이름의 음양오행과 한자획수는 적용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외자이름은 왕가 중에서도 왕권을 이어 받는 왕들이 외자이름을 썼으며 왕의이름에 사용된 글자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자이름을 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글이름의 경우는 발음의 오해조화를 따지니 수리성명학이 적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수리성명학과 음양오행에서는 운세를 보완하려는 인간노력의 하나였고 뜻과 소리역시 에너지를 준다는 점에서 팔자의 보완장치로 분명 일리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				2
		1			7
			4	1	
3			6	8	5
			7	5	3
1			2	4	6
			1	2	
		8			3
	1				6

			1		5	2
9	4			2		1
2						
			7			1
	2		9	1		7
1			3			
						8
	8		4			9
	1	3		2		

정답

8	9	2	1	7	8	9	1	6
7	1	8	9	9	6	8	1	2
1	9	6	2	8	1	8	9	7
9	8	8	7	6	2	1	9	1
2	6	1	8	9	1	7	8	9
9	1	7	8	1	9	6	2	8
8	8	9	1	1	7	2	6	9
6	7	1	9	2	9	1	8	8
1	2	9	6	8	8	9	7	1

9	9	7	2	6	8	8	1	1
2	6	1	1	7	8	9	8	9
8	8	1	9	1	9	2	6	7
9	9	2	8	8	7	6	1	1
8	1	8	1	9	6	7	2	9
1	7	6	9	1	2	9	8	8
7	8	8	6	9	1	1	9	2
1	1	9	8	2	9	8	7	6
6	2	9	7	8	1	1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